

전남교육청-전남도 '전남 농어촌 교육 살리기' 1천억 투입

동·서·중부권에 영어 전용도서관 건립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가 두 손을 맞잡고 낙관된 전남 농어촌 교육 살리기에 나선다.

양 기관은 최근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13년까지 5년동안 61개 교육 사업에 1천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남 교육 살리기'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을 살펴본다.

10개 고교에 친환경 기숙사

수준별 이동수업 학교 확대

2013년까지 61개 교육사업



김장환 전남도교육감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최근 전남도청에서 '농어촌 교육 활성화와 인재육성, 학자금 이자지원,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 교육기반 시설 구축=농어촌 교육 시설의 선진화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도내 10개 고교에 녹색 친환경 기숙사가 건립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 친환경자재, 빛을 이용·수경 시설 등이 어우러진 녹지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도내 5개교에는 학습프로그램 및 지역 공동체 문화 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이 신축되며 1개교에 15억원씩 투입된다.

◇ 초·중·고 교육프로그램 확대=도시와 차별화된 농어촌 학교 구축을 위한 '선진화 시범학교'가 확대된다. 지난 2008년부터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1곳이 운영중인데 2010년에는 6개교가 추가 지정된다. 이를 학교에는 3억원씩의 예산이 지원되며 방과후 학교 및 학력 향상 교육과정 등이 운영된다.

현재 중·고교 183개교에서 운영중인 수준

전남대와 조선대 교수들의 저서가 대거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전남대는 흥윤호 교수가 저술한 '식품 생리활성물질 과학'과 김경국 교수 '대학장구 비지(大學章句 備旨)', 엄영욱 외 2인 '중국근대 문화사상 연구' 양희석 외 25인 '동아시아의 생사관' 등 4권이 우수 학술도서로 뽑혔다. 이중 '식품 생리활성물질 과학'은 식품 중에 존재하는 생리활성물질의 종류, 이화학적 특성, 영양생리학적 기능, 건강증진효능 등을 학술적으로 조명했다.

'대학장구 비지(大學章句 備旨)'는 고대 성인 주희(朱熹)의 '대학장구(大學章句)'를 번역한 것으로 전국대학에서 동양철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근대 문화사상 연구'는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와의 관

계, 동아시아 문화속에서의 한·중·일 문학 및 그 정체성 연구 등에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 '동아시아의 생사관'은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각도에서 삶과 죽음을 탐색하는 글 22편이 실려 있다.

조선대의 경우는 김수관 교수의 저서는

'대학장구 비지(大學章句 備旨)'는 고대

성인 주희(朱熹)의 '대학장구(大學章句)'

를 번역한 것으로 전국대학에서 동양철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근대 문화사

상 연구'는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와의 관

계, 동아시아 문화속에서의 한·중·일 문학 및 그 정체성 연구 등에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 '동아시아의 생사관'은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각도에서 삶과 죽음을 탐색하는 글 22편이 실려 있다.

조선대의 경우는 김수관 교수의 저서는

'대학장구 비지(大學章句 備旨)'는 고대

성인 주희(朱熹)의 '대학장구(大學章句)'

를 번역한 것으로 전국대학에서 동양철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근대 문화사

상 연구'는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와의 관

계, 동아시아 문화속에서의 한·중·일 문학 및 그 정체성 연구 등에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 '동아시아의 생사관'은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각도에서 삶과 죽음을 탐색하는 글 22편이 실려 있다.

조선대의 경우는 김수관 교수의 저서는

'대학장구 비지(大學章句 備旨)'는 고대

성인 주희(朱熹)의 '대학장구(大學章句)'

를 번역한 것으로 전국대학에서 동양철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근대 문화사

상 연구'는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와의 관

계, 동아시아 문화속에서의 한·중·일 문학 및 그 정체성 연구 등에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 '동아시아의 생사관'은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각도에서 삶과 죽음을 탐색하는 글 22편이 실려 있다.

조선대의 경우는 김수관 교수의 저서는

'대학장구 비지(大學章句 備旨)'는 고대

성인 주희(朱熹)의 '대학장구(大學章句)'

를 번역한 것으로 전국대학에서 동양철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근대 문화사

상 연구'는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와의 관

계, 동아시아 문화속에서의 한·중·일 문학 및 그 정체성 연구 등에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 '동아시아의 생사관'은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각도에서 삶과 죽음을 탐색하는 글 22편이 실려 있다.

조선대의 경우는 김수관 교수의 저서는

'대학장구 비지(大學章句 備旨)'는 고대

성인 주희(朱熹)의 '대학장구(大學章句)'

를 번역한 것으로 전국대학에서 동양철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근대 문화사

상 연구'는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와의 관

계, 동아시아 문화속에서의 한·중·일 문학 및 그 정체성 연구 등에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 '동아시아의 생사관'은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각도에서 삶과 죽음을 탐색하는 글 22편이 실려 있다.

조선대의 경우는 김수관 교수의 저서는

'대학장구 비지(大學章句 備旨)'는 고대

성인 주희(朱熹)의 '대학장구(大學章句)'

를 번역한 것으로 전국대학에서 동양철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근대 문화사

상 연구'는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와의 관

계, 동아시아 문화속에서의 한·중·일 문학 및 그 정체성 연구 등에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 '동아시아의 생사관'은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각도에서 삶과 죽음을 탐색하는 글 22편이 실려 있다.

조선대의 경우는 김수관 교수의 저서는

'대학장구 비지(大學章句 備旨)'는 고대

성인 주희(朱熹)의 '대학장구(大學章句)'

를 번역한 것으로 전국대학에서 동양철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근대 문화사

상 연구'는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와의 관

계, 동아시아 문화속에서의 한·중·일 문학 및 그 정체성 연구 등에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 '동아시아의 생사관'은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각도에서 삶과 죽음을 탐색하는 글 22편이 실려 있다.

조선대의 경우는 김수관 교수의 저서는

'대학장구 비지(大學章句 備旨)'는 고대

성인 주희(朱熹)의 '대학장구(大學章句)'

를 번역한 것으로 전국대학에서 동양철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근대 문화사

상 연구'는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와의 관

계, 동아시아 문화속에서의 한·중·일 문학 및 그 정체성 연구 등에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 '동아시아의 생사관'은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각도에서 삶과 죽음을 탐색하는 글 22편이 실려 있다.

조선대의 경우는 김수관 교수의 저서는

'대학장구 비지(大學章句 備旨)'는 고대

성인 주희(朱熹)의 '대학장구(大學章句)'

를 번역한 것으로 전국대학에서 동양철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근대 문화사

상 연구'는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와의 관

계, 동아시아 문화속에서의 한·중·일 문학 및 그 정체성 연구 등에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 '동아시아의 생사관'은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각도에서 삶과 죽음을 탐색하는 글 22편이 실려 있다.

조선대의 경우는 김수관 교수의 저서는

'대학장구 비지(大學章句 備旨)'는 고대

성인 주희(朱熹)의 '대학장구(大學章句)'

를 번역한 것으로 전국대학에서 동양철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근대 문화사

상 연구'는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와의 관

계, 동아시아 문화속에서의 한·중·일 문학 및 그 정체성 연구 등에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 '동아시아의 생사관'은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각도에서 삶과 죽음을 탐색하는 글 22편이 실려 있다.

조선대의 경우는 김수관 교수의 저서는

'대학장구 비지(大學章句 備旨)'는 고대

성인 주희(朱熹)의 '대학장구(大學章句)'

를 번역한 것으로 전국대학에서 동양철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근대 문화사

상 연구'는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와의 관

계, 동아시아 문화속에서의 한·중·일 문학 및 그 정체성 연구 등에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 '동아시아의 생사관'은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각도에서 삶과 죽음을 탐색하는 글 22편이 실려 있다.

조선대의 경우는 김수관 교수의 저서는

'대학장구 비지(大學章句 備旨)'는 고대

성인 주희(朱熹)의 '대학장구(大學章句)'

를 번역한 것으로 전국대학에서 동양철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근대 문화사

상 연구'는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와의 관

계, 동아시아 문화속에서의 한·중·일 문학 및 그 정체성 연구 등에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 '동아시아의 생사관'은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각도에서 삶과 죽음을 탐색하는 글 22편이 실려 있다.

조선대의 경우는 김수관 교수의 저서는

'대학장구 비지(大學章句 備旨)'는 고대

성인 주희(朱熹)의 '대학장구(大學章句)'

를 번역한 것으로 전국대학에서 동양철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근대 문화사

상 연구'는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와의 관

계, 동아시아 문화속에서의 한·중·일 문학 및 그 정체성 연구 등에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 '동아시아의 생사관'은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각도에서 삶과 죽음을 탐색하는 글 22편이 실려 있다.

조선대의 경우는 김수관 교수의 저서는

'대학장구 비지(大學章句 備旨)'는 고대

성인 주희(朱熹)의 '대학장구(大學章句)'

를 번역한 것으로 전국대학에서 동양철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근대 문화사

상 연구'는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와의 관

계, 동아시아 문화속에서의 한·중·일 문학 및 그 정체성 연구 등에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 '동아시아의 생사관'은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각도에서 삶과 죽음을 탐색하는 글 22편이 실려 있다.

조선대의 경우는 김수관 교수의 저서는

'대학장구 비지(大學章句 備旨)'는 고대

성인 주희(朱熹)의 '대학장구(大學章句)'

를 번역한 것으로 전국대학에서 동양철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근대 문화사

상 연구'는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와의 관

계, 동아시아 문화속에서의 한·중·일 문학 및 그 정체성 연구 등에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 '동아시아의 생사관'은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각도에서 삶과 죽음을 탐색하는 글 22편이 실려 있다.

조선대의 경우는 김수관 교수의 저서는